

목포 근대역사관 1·2관 새 단장한다

옛 일본영사관(1관)

AR 등 활용 실감 콘텐츠 6편 제작

색다른 문화체험 관광자원화

동양척식회사(2관)

문화재 복원·전시시설 전면 개편

최신 트렌드에 맞게 리뉴얼

목포의 대표 근대역사문화 자산인 옛 일본영사관(근대역사관 1관)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근대역사관 2관)이 새롭게 단장된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근대역사관 1관은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제작 사업'이 추진되고, 근대역사관 2관은 전시환경을 전부 바꾸는 '리뉴얼 사업'이 진행된다.

이들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공립 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과 '공공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각각 선정됐다.

옛 동양척식회사 건물은 지난 2006년 근대역사관 2관으로 조성된 이후 시설물이 노후 되고 그동안 전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1층에는 목포 근대사 사진 80점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고 2층은 오는 4월 8일 개막 예정인 목포 항일독립운동 특별전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근대역사관 2관 리뉴얼 사업은 사업비 10억원(국비 4억, 시비 6억)을 투입해 문화재 원형을 복원하고 내부 전시시설을 전면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문화재 복원은 건물 내벽 보수, 수장고 확장, 가벽과 창문막이 철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전시시설 개편은 사진 위주 전시에서 탈피해 최신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 등 전시시설물을 재연출하게 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전시환경이 조성되고 관람 편의성이 크게 향상돼 새로운 관람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역사관 1관(옛 일본영사관)은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앞서 목포시는 연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공모에 '목포근대역사관 체험형 증강현실 큐레이터 콘텐츠 제작' 사업을 응모해 지난달 5일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목포시는 1단계로 1897년 개항부터 현재까지 꺾벌을 매워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여주고, 증강현실(AR) 그래픽과 근대역사관 1층의 정교한 시가지 모형을 결합해 목포 원도심의 역사적 가치와 건물들의 건축사적 가치를 흥미롭게 전달하게 된다.

또 살아있는 박물관인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내려다보며 구석구석 숨어있는 근대의 문화재들을 AR 도슨트(증강현실 안내원)가 해설하는 콘텐츠와 옥단이, 멜라공, 외팔이, 좌약장수 등 목포 4대 명물의 스토리로 실감기술로 재현된다.

특히 스마트 안경(AR 글래스)을 활용해 표현되는 콘텐츠들은 사용자의 음성과 동작에 반응하는 쌍방향 미디어로 관람객의 흥미유발은 물론 뛰어



목포시는 근대역사관 1관(옛 일본영사관)을 실감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리뉴얼한다. 목포시가지 모형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재현 모습. <목포시 제공>

난 몰입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감 콘텐츠는 총 6편에 30분 분량으로 제작되며 10억이 투입된다.

역사공간으로 콘텐츠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근대역사문화 공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승만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의 가치 증대는 물론 근대역사관

의 대외 이미지도 제고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상승해 연간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추경에 반영된 이들 사업비 20억원(1관 10억, 2관 10억)은 지난 18일 목포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코로나에 지친 도심 "밝고 환하게"

목포시, 23개동에 팬지 등 5만본 분양...공한지 등 식재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달래고 집울한 도심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동네 구석구석 화려한 봄꽃을 파종하는 등 쾌적한 경관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팬지, 웨이브, 금잔화, 데이지, 크리산 세뭉치 등 5종 5만 본을 분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봄꽃은 각 동 자생조지들의 손을 거쳐 관내 공한지와 취약지역 등지에 식재된다.

목포시는 주요 관광지 주변과 다중 통행지역에 차별화된 정원(테마화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석현광장과 만남의폭포 앞 등 24개 교통섬 화단(4250㎡)을 비롯해 평화광장 등 3개소 테마화단(1300㎡), 유달산 등 12개소에 대형 화목 분 282개, 가로등·난간걸이 화분 11개소에 970주 등 시가지에 대한 꽃 식재도 진행돼 낭만향구 목포의 거리

가 화려한 꽃물결로 넘쳐나고 있다.

목포시 공원녹지과는 석현동에 하우스 10동 등 7590㎡에 달하는 꽃 육묘장을 조성해 봄꽃 13종 25만본, 여름꽃 14종 25만본, 가을꽃 10종 25만본, 겨울꽃 4종 25만본 등 연간 100만 본의 꽃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시가로 구입해 식재한다면 연간 5억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육묘장 직영(예산 3억5700만원)을 통해 연간 1억5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목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사계절 꽃이 어우러지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연 4회에 걸쳐 시기별로 30종 100만 본을 자체 생산해 명품 꽃 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시가 직영하는 꽃 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육묘작업을 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재정안정화 기금

올해 40억원 규모 조성

목포시의회, 조례안 의결

목포시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이상의 자주재원(용도가 정해지지 않은)이 발생할 경우의 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23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백동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가 지난 18일 목포시의회의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5%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일반회계 순계영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2019년을 예로 들면 세입 총액이 4499억4400만원, 최근 3년 경상 일반재원 평균 세입액은 3449억600만원이다. 따라서 15% 초과 금액이 533억200만원, 이에 초과분의 5%인 26억65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또 목포시의 순계영여금 규모는 지난해 390억원(2018년), 올해 600억원(2019년)으로 최근 3년 평균은 연 400억원이다. 따라서 초과분 160억원의 10%인 16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는 게 목포시 예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현저하게 감소해 세입보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해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른 기금의 지방재 원리금 상환 ▲긴급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백동규 목포시의원은 "목포시의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기독병원 국가건강검진 평가

서남권 유일 전 항목 '우수' 등급

목포기독병원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서남권에서 유일하게 전 항목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병원급 이상 1515개소를 대상으로 8개 검진 유형으로 평가했다.

오인균 대표 원장은 "이번 '우수' 등급 획득은 체계적 진료 시스템과 더불어 지속해서 검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본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국민건강과 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 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